

이집트에서 사랑하는 동역자 여러분께 평안을 전합니다.



<선교사 재교육 중>

새로운 시작

한국에서의 3개월을 은혜 속에 보내고 입애굽하기 직전 선교사 재교육이 있었습니다. 오랜만에 선교사 훈련원 동기들과 함께 모이는 시간, 어느 날 밤 모든 프로그램을 마치고 우리끼리 밤에 모여서 서로의 기도제목을 나누고 교제하는데 서로 격려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.

차마 편지에는 적지 못할 마음 속 깊은 이야기들을 털어놓고 함께 울고 우리는 각자의 축복의 땅으로 다시 돌아갔습니다.

반가운 흙먼지, 담배 연기, 길거리의 각종 개, 고양이, 말, 당나귀의 배설물.. 오랜만에 보니 너무 반갑습니다. 다시 돌아온 옛집은 어느 날 갑자기 우당탕 하는 소리와 함께 천장에 구멍이 뚫렸습니다. 그리고 자님은 우리 거처를 옮겨 새장막에서 다시 새로운 마음으로 이 땅에서의 삶을 시작할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.

언어(아랍어) 집중

한국에서는 돌아왔지만 내년 4월 말까지는 공식적인 안수년 기간입니다. 이 때가 아니면 안될 것 같다는 마음으로 아랍어 공부에 집중하고 있습니다. 일주일에 표준 아랍어 수업 두 번, 이집트 아랍어 한번, 그리고 매일 밤마다 줌으로 요한바움을 아랍어로 읽고 있습니다. 자님께서 아랍어 번역을 전공하신 귀한 집사님을 붙여주셔서 가능한 일입니다.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



<구멍난 천장>



<이집트 아랍어 선생님 D와 함께>



<표준 아랍어 줌 수업 중>

치유의 기적

새로운 집으로 이사 오면서 필요한 것들 많습니다. 전기공 M을 불러서 등을 설치하고 고장난 콘센트를 고쳤습니다. 이 친구의 태도가 참 좋아서 왠지 이 친구를 위한 ㄱㄷ가 계속 나왔는데 어느 날 갑자기 먼저 이 친구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. 아들이 고환에 종양이 생겨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데, 수술비가 조금 모자르다고 도와줄 수 있냐는 연락이었습니다.

이 친구를 불러서 귀신 들린 아들을 ㅇ수님께 데리고 나온 아버지의 이야기를 찾아서 ㅅ경을 함께 읽었습니다. 그리고 손을 붙들고 간절히 그 아들을 위해서 또 이 친구의 불편한 다리를 위해서도 기도했습니다. 눈을 뜨자 이 친구의 눈에 눈물이 그렇그렁합니다. 자님이 M의 마음을 만져주시길 계속 ㄱㄷ합니다.

수도공 A도 어느 날 집에 왔는데 목에 붕대같은 걸 메고 왔습니다. 담이 온 건지 근육이 다친건지 아무튼 목을 제대로 쓰지 못했습니다. 일을 마치고 방으로 불렀습니다. 글을 읽을줄 모르는 친구라서 말로 이야기해 주고 이 친구 목에 손을 얹고 간절히 ㄱㄷ했습니다. ㄱㄷ가 마치자 이 친구가 눈물을 글썽이며 목이 아프지 않다고 하며 좌우로 흔들어 댁니다. 할르루야!

저도 이런 경험이 많지 않아서 나도 모르게 당황이 되서 ㅇ수님께서 고쳐주신 것이라고만 이야기하고 인사하고 보냈습니다. 지금 돌아보니 그 때 바로 마음을 전했어야 되었는데 참 아쉽습니다. 자님, 더욱 저를 준비시켜 주세요!



<전기공 M과 함께>

본질에 집중

혼자서 오랜 시간을 거리로 ㅈ도하러 다녔던 귀한 후임 선생님과 함께 최근부터 같이 나가게 되었습니다. ㄱㄷ하며 걷다가 성ㄹ님께서 마음 주시면 가서 인사하고 이야기를 나누다가 아픈 곳이 있냐고 묻고 그 곳에 손을 얹으면 자님이 역사하십니다. 그러면 바로 마음을 전합니다. ㅇ수님과 제자들이 했던 가장 본질적인 방식이기에 참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었습니다.

보안경찰이 찾아와서 신원을 조회하고 간 바람에 당분간 조금 조심했던

류선생님도 이제 다시 거리로 나가자고 하시니 앞으로 일주일에 두번씩 밤에 거리로 나가게 되었습니다.

돌아온 MBB(개ㅈ자)들을 양육하는 농장 ㅅ역도 계속되지만 현장으로 직접 나가는 ㅅ역도 계속됩니다. 전ㄷ자는 전ㄷ할 때 살아납니다. 그리고 더욱 ㄱㄷ하게 됩니다. 이런 은혜를 주신 자님을 찬양합니다!



<농장 새신자 수련회 중>

* ㄱㄷ 제목

- 하루 세번 ㄱㄷ의 시간이 계속 유지되고 날마다 ㄱ령 충만하게 하소서.
- ㄱ도로 ㄱ령 충만하여 치유의 기적이 계속해서 나타나게 하시고 말씀을 보는 눈이 더욱 열려서 무수림들에게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하게 하소서.
- 지혜를 주셔서 아랍어에 더욱 진보가 있게 하소서.
- 교제하는 엠 친구들이 나를 통해서 ㅇ수님을 만나게 하소서.



<팀 모임 중>



<카이로 시내 전경>



<카이로 내에 있는
오스왈드 챔버스 묘지 방문>



<이한사협 총무로서 마지막 모임 중>



<전드러 나가는 거리의 모습>